

## 통신공학 개척자 吳鉉緯 박사

대담 / 李光榮 (과학평론가)

우리나라 통신공학분야의 개척자로  
많은 업적을 남긴 오현위(吳鉉緯)박사는  
84세의 고령답지 않게 활기찬 삶을 누리고 있다.  
오박사는 요즘 영국에서 출간한 총 20권으로 된 과학연재물  
『발견과 탐험(Discovery & Exploration)』의  
영문판을 탐독하는데 심취해 있다.

■ 박사님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고향은 경의선(京義線)이 통과하는 교통요지인 평북 선천(宣川)입니다. 아버지(吳崇駿)는 법조인으로 내가 태어날 때(1913년) 검사이셨습니다. 어머니(張敬淑)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이셨는데 우리 집안은 당대 알아주는 재산가였지요. 5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평양의 종로 보통학교를 거쳐 평양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평양고보시절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육상에 취미가 있어 100m를 12초대로 뛰기도 했지요. 졸업후 부친의

뜻에 따라 곧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1년간 진학준비를 한 후 1934년 와세다(早稻田)대학 전기공학과 제2분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와세다대학 전기공학과는 3개 분과가 있었어요. 제1분과는 전기기계제조, 제2분과는 통신공학, 제3분과는 전기응용분야였는데 각 분과별로 30명씩을 뽑았습니다. 경쟁률이 무척 높아 내가 들어갈 때 23대 1의 관문을 뚫어야 했어요.

### 日 와세다대 전기공학과 유학

■ 전기공학과를 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기공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디다만 아마도 과학시간에 전기현상에 대해 흥미를 가졌던 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는 내가 법학을 해서 뒤를 이어줄 것을 바라셨습니다. 일본으로 갈 때 아버지는 무엇을 공부하겠는가고 물었지요. 전기공학을 하겠다고 하니 딱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지 않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 대학에서 조선사람이라 해서 어려움 없었습니까.

한국사람이 나 한사람이었는데다 태평양전쟁(1941~45년)이 일어나기 1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차별은 없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해서 공부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당시 와세다대학 이공학 부엔 1년 선배로 강원산업을 일으킨 정인욱(鄭寅旭)씨가 채광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축구·승마·테니스·스키 등을 즐겼는데 특히 스키와 마장마술을 좋아했지요.

대학 졸업후 곧 동경(東京)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주)에 취직(1940년)해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일본은 전세(戰勢)가 불리해지면서 물자가 달라져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동경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서울지사 근무를 지원했지요. 서울로 발령(43년)받고 오니 동경 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조선사람에 대한 차별대우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이를 참지 못해 6개월만에 사표를 내던지고 고향인 선천 인근의 시골에 들어가 지내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8.15해방 소식을 듣던 날 기차를 타고 평양의 부모님을 찾아 갔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47년 부모님이 먼저 월남하셨고 몇달 후 나도 3·8선을 넘었습니다.

■ 서울대 공대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언제, 어떤 연유이셨는지요.

부모님은 월남 후 곧 종로구 관철동에 집을 마련하시고 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셨어요. 대학 선배인 이재근(李載

坤)씨가 서울대 공대 교수로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나와 같은 와세다대학 전기공학과 제2분과 10년 선배로 우리나라 통신공학분야의 태두이신 이재근교수는 아주 잘 왔다고 서울대 공대 통신공학과 조교수로 발령해 주었습니다.

### 공대교수 발령...태능까지 도보출근

■ 당시 서울대 공대 통신공학과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른바 국대안파동은 없었는지요.

내가 서울대 공대 통신공학과 조교수로 발령받은 해는 국대안파동의 거센 물결이 지나가고 학업 분위기가 잡혀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설이 보잘 것 없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교육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통신공학과에 조정만(趙正萬)교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나는 관철동에서 태능까지 매일 걸어 출퇴근을 했는데 가르칠 교과목에 대한 준비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일을 했고 여름과 겨울방학은 물론 일요일에도 쉬는 날 없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6·25의 어려운 격동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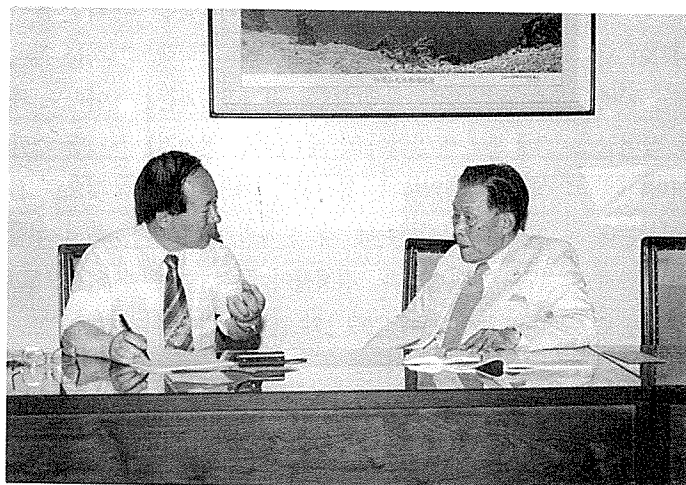
일요일인 6월 25일 나는 이날도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 관철동 집을 나와 학교로 갔습니다. 오후 3시무렵 직원 한 분이 연구실로 찾아와 북한이 쳐들어온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분은 아마도 교실에 남아 태연히 연구하고 있는 나를 보고 6.25가 터진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곧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국군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피난갈 기회를 잃었지요. 나는 6·25때 평생 처음으로 배를 훑아보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들도 다 겪는 것이었지만 먹는 문제에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나로서는 허기를 달래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 경험했지요.

### 6·25동란 후 공군통신감 역임

1·4후퇴 때는 서둘러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 피난시절 서울대 공대 부교수로 있으면서 공군소령에 임명되어 공군사관학교 교수직을 맡아 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같은 겸직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신동의 서울대학교와 진해의 공군사관학교를 오가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9·28수복 이후 서울대



▲ 창원기능대학 초대학장이었던 오박사(右)는 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립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는 피난살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군에 몸담고 있던 나는 진해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어요. 서울대는 문교부를 통해 나를 속히 서울대 교수로 복귀코치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어요. 그러나 공군은 공군대로 내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문교부와 국방부의 줄다리기 끝에 공군에 적을 둔채 서울대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으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공군 통신감(대령)을 거쳐 공생활 7년6개월을 마치고(57년 4월) 서울대 교수로 정식 복귀했습니다. 조장희(趙長熙)박사는 그때 내가 대학원에서 가르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공군 통신감으로 있던 1956년 지금의 내자(李寅姬·70)를 중매로 만나 혼례를 했습니다. 43세 때의 일이지요. 자식은 1남2녀를 두었습니다.

■ 서울대학은 언제 그만두셨는지요.

1963년 서울대 교수직을 떠나 윤일선(尹日善)박사 밑에서 원자력원의 원자력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65년 성균관대 교수가 되어 초대 이공대학장을 맡아 나름대로 기초를 닦는데 일조했지요. 이어 대학원장과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보다가 성대가 삼성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공대학장을 그만둔 후 짬을 내어 모교인 와세다대학에 가 지금의 디지털 통신의 바탕이 되는 '負性특성회로에 의한 펄스변조연구'로 공학박사학위(1971년)를 받았습니다.

■ 창원기능대학 초대 학장으로 역할이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를 그만두고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초대 소장(76년)과 창원기능대학 초대

학장(77년)을 맡아 기반을 닦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창원기능대학을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능대학은 기능인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국가가 정책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애초 기능대학은 과학의 박사, 기술의 기술사에 버금가는 기능장을 길러 내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 성대거쳐 창원기능대 학장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대를 나온 기술자가 아무리 현장기술에 능하다 해도 기능에 관한 한 기능인을 따라갈 수 없으며 기능인은 아무리 기능을 숙달한다 해도 역시 기술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데 주목했지요. 이 때문에 기능장은 기술과 기능에 가로 놓여있는 장벽을 헐고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나는 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의 품성을 높여주는 교양과목과 정신교육 그리고 후생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대학 기숙사는 당시 시설과 운영면에서 가장 좋다고 이름난 한국과학원(KAIST)과 이대(梨花) 기숙사의 장점을 모두 살려 만들어졌습니다. 기숙사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은 기능인들이 사회적 배려를 기숙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지요.

■ 기능대학장을 그만 두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기능대학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친후 서울로 올라와 김원희(金玩熙)박사와 함께 통신관계 용역회사를 만들어(80년) 일을 하다가 친구가 전자시보사를 창간해 합

께 일할 것을 권하는 바람에 83년부터 88년까지 회장직을 맡아보았습니다. 5년 동안 10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결국 모 재벌기업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지요.

■ 요즘의 젊은 후학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술자의 성패는 기술보다는 인간성이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요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실공사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술자도 인문 사회계통의 지식을 폭넓게 쌓아야 합니다. 교양서적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선생님을 80대로 보는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아직도 60대의 젊음을 간직하고 계신 비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어떻게 소일하고 계신지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운동이나 식사에 특별히 신경쓴 일이 없습니다. 건강은 타고 나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병이라곤 모르시고 모두 85세의 수(壽)를 누리셨습니다. 나도 이때까지 살아오며 건강에 대해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습니다. 건강비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생활습성을 구태여 꼽으라고 한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과 소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5시에 일어나 활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놓습니다. 간식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하면 몸이 가뿐할 뿐 아니라 머리도 맑아져 일을 하는데 능률이 나지요. 학술원 회원으로 가끔 모임에 나가는 일 외엔 특별히 여행을 한다거나 일부러 외출을 하는 일이 거의 없고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5년 전부터 영문판 『발명과 탐험』을 통해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소일거리이지요. ①7